

코로나 앓보는 청년들 향한 경고 "30년 후유증 앓을 수도"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경고를 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후 완치돼 살아남더라도 뇌와 심장 등 몸 대부분의 장기에 20년~30년 동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연구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가 "코로나19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의사가 '신세대 만성질환자'에 대해 경고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미 25개 주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 사례를 조사한 결과,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전파자나 확진자가 되는 경우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라 카스 응급의학과 교수는 "우리가 집에 머물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다면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을 감소한 뒤, (만약 걸리면) 약을 먹고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 전파력과 위험성에 대해 경시하는 젊은이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재개를 추진하면서 주정부들에게 젊고 건강한 이들을 직장 출근 등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완치되더라도 다른 장기 손상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스 박사는 "만성 질환자의 나이가 젊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러스는 환자들의 심장과 폐, 혈관, 신장 등 정말로 모든 장기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영국의 최근 연구는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뇌 합병증 징후를 발견했다. 뇌 합병증은 노인들에게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을 키웠고, 젊은 사람들에게 정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징후를 보였다. 그 외 많은 연구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심장에 급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 뇌졸중,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카스 박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발생하는 염증과 흉터에 오랜기간 지속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30대~40대의 환자 중 일부는 앞으로 20년~30년간 이 문제와 싸

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 본토서 이틀째 100명 넘어... 긴급 방역에도 '확산세'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틀째 100명을 넘어섰다. 홍콩은 열흘 가까이 매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긴급 방역 대책에 나섰지만 확산세는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3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해외 역류 입 사례는 3명이며 102명은 모두 중국 본토에서 확인됐다. 신장위구르자치구 96명, 랴오닝성 5명, 베이징 1명 등이다.

신장의 경우 26일 22명, 27일 41명, 28일 57명, 29일 89명 등 갈수록 감염자가 늘고 있다. 이날 신장의 신규 확진자는 재발병 이후 최고 수치다. 랴오닝성은 전날 8명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꾸준히 한 자릿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수도 베이징은 사흘 연속 1명씩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누적 3명이다.

중국 지도부는 랴오닝성 다롄 등 주요 확산지역에 영도소조를 파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장 우루무치 등은 부분 봉쇄를 벌였으며 베이징 확진자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확산 검사를 하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본토 코로나19는 신장과 랴오닝성에서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베이

징까지 전방위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는 574명이며 이 중에서 중증은 33명이다. 새로운 환자가 속속 나오면서 중증 환자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완치 퇴원자는 13명이 추가돼 7만8957명으로 늘었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8만4165명으로 기록됐다.

중국에서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21명이 새로 나왔다. 아직 의학적 관찰 대상인 무증상 감염자는 280명이다.

중국 본토 밖 중화권의 경우 35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홍콩 3002명(사망 24명), 마카오 46명, 대만 467명(7명) 등이라고 국가위생위는 전했다.

홍콩은 전날에 비해 확진자가 118명 증가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됐다. 홍콩은 신규 확진자가 9일째 100명을 넘고 있다. 지난 5일 이후 3차 확산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 감염 사례 중 상당수는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홍콩은 코로나19 감염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전날부터 식당 내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2인 초과 모임을 차단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최소 일주일 동안 이어지며 어기면 최대 5000홍콩달러(약 77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코로나 아이러니'? 인도 빈민가 주민 57% 항체 보유

인도 뭄바이 빈민가의 주민 5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조치가 열악한 빈민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오히려 세계 최초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는 '코로나 아이러니'가 일어난 셈이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뭄바이 소재 타타기초연구소와 시 당국은 이달 다하사르, 첼부르, 마통가 등 뭄바이 근교의 대표적인 빈민가 3곳에서 무작위로 6936명의 혈청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57%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집단면역은 지역 주민 대다수가 면역력이 생겨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상태를 이른다. 통상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60% 이상 항체를 보유했을 때 집단면역이 작동한다고 보는데 뭄바이 빈민가가 이에 근접한 것.

뭄바이 빈민가의 항체 보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감염이 폭증하던 4월 미국 뉴욕의 항체 보유율은 21.2%였고, 5월 집단면역을 방역 대책으로 내세웠던 스웨덴 스톡홀름이 14% 수준이었다. 실제로 인도 전반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사 지역에서는 4월 폭발적인 발병 이후 최근 몇 주간 증가세가 둔화됐다.

인도 빈민가의 집단면역이 의도된 것은 아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에선 이미 코로나19가 손을 쓸 수 없이 퍼지면서 의도치 않은 면역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뭄바이 빈민가는 80여 명이 공동 화장실을 함께 쓰고 9㎡(약 2.8평)에서 평균 8명의 가족이 지내는 등 위생조건이 열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주민들의 연령층이 비교적 낮아 감염됐어도 심각하게 앓지 않고 항체

를 형성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는 이날 월드오미터 기준 누적확진자 158만7982명, 사망자 3만5035명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확진자가 많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다음달부터 야간 통행금지 해제, 체육관 운영 재개 등의 봉쇄 완화 3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혀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9일 코로나19 관련해 의도적으로 집단면역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질병통제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재 코로나19로 벌어지는 참상을 볼 때 매우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경고했다. 집단면역을 달성하기까지 피해가 막대하고, 향후 전개 방향도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되면 후각 마비되는 이유 밝혀졌다

코로나19의 독특한 증상은 초기에 후각 및 미각 상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물론 감기에 걸리면 코가 막히면서 후각이 둔감해지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코로나19처럼 호흡기 증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후각 신경이 마비되어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다행히 수주 이내로 좋아지긴 하지만, 미국 하버드 의대 샌드 로버트 다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상세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가 정확히 어떤 세포에 침투해 후각 마비를 일으키는지 조사하기 위해 실제 사람 세포와 쥐, 영장류를 이용한 동물 모델을 사용했다. 연구팀은 사람과 동물의 후각 신경 표면에 SARS-

CoV-2의 침투 경로인 ACE2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후각 신경 세포에 침투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침투해 파괴한다면 후각 마비는 단기간에 회복되는 대신 상당히 오래 지속되거나 심지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후각을 마비시킨다는 이야기다.

연구팀은 ACE2 수용체와 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할 때 필요한 효소인 TMPRSS2의 유전자 발현을 조사해 이 미스터리를 밝혀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부위는 신경 세포가 아니라 코점막에 있는 후각 신경 지지 세포들이다. 전신을 감싸는 피복처럼 신경 세

포를 감싸고 있는 주변 세포가 손상되면서 신경 세포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것이다. 이 세포들은 ACE2 수용체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침투할 때 가장 먼저 감염되는 부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각 상실 증상이 심지어 호흡기 증상보다 더 일찍 발생하는 것이다.

후각 마비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별다른 치료 없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징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치명적이지 않은 코로나 19 감염 증상이라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윤세웅 척추신경 교정의료원

DR. MICHAEL YOON CENTURY CHIROPRACTIC WELLNESS CENTRE



『뱀 마디마디가 아프십니까?』
옛말에...
굴러가는 돌속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벼운 운동이나 교정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척추신경이상에서 오는 증세:

- 두통과 목이 뻐뻐하고
- 팔다리가 무기력하고 저리고,
- 어깨와 허리가 통증이 오고
- 관절마다 신경통이 오고,
- 두통후 각종 후유증이 오는 것 등이 척추신경에서 오는 증세입니다.



교통사고 = 척추
운동사고 = 관절
직장사고 = 근육

교정

건강비법(秘法)은?

쾌면·쾌식·쾌변이 되어야 합니다. 잘먹고 잘자고 잘배출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체의 몸통은 관절마디마디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디마디를 운동과 교정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정을 해 줌으로서 탈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윤세웅 원장 (교정사)

약력: 미국 샌프란시스코 5년 개업 운영
한국 교정사학 지도위원
대한 합기도 검무관 캐나다부분 사범
현,세기 척추교정의료원 운영

TEL: (403)289.8285 FAX: (403)338.1808 #312A - 3630 BRENTWOOD ROAD N.W. CALGARY AB. T2L1K8

윤세웅 척추신경의는 미국내 굴지의 각종 운송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정치료를 하는 실력있는 척추신경전문 의입니다.